



그림같은 집을 짓고 지난 31일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의 한옥들이 초여름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계 100대 도시’ 광주시 야심찬 꿈

2014년 진입 목표 도시경쟁력 높이기 나서

광주시가 오는 2014년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경쟁력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안) 및 2012 실행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안) 수립은 광주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국제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500대 도시 평가’에서 295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500대 도시에 들지 못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달 말 2012년 세계 500대 도시를 발표할 예정으로, 광주시는 이번 발표에서 20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안)’에는 계획 수립배경과 그동안 추진경위, 해외도시를 포함한 타 도시의 경쟁력 분석과 함께 광주시의 경쟁력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추진체계가 담겨있다.

도시경쟁력위원회는 광주의 비전을 ‘국제중심 창조도시·광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2014년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광주시가 국제경쟁력 하위도시에서 벗어나 세계 유명도시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6대 분야 64개 과제를 확정·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대 분야는 ▲인본민주도시 ▲문화예술도시 ▲경제기반도시 ▲녹색환경도시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경쟁력은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도시경쟁력위원회가 세계도시 광주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경쟁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1일 제정·시행된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에 따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다 소관 부서별로 추진되던 도시경쟁력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광주시의 대내외적인 도시위상 및 가치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옥에서의 하루 ... 행복을 체험하세요

전남 한옥마을 45곳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인기  
천연염색·손두부 만들기 등 ... 도농교류 창구로

“한옥 지었더니 사람들이 찾아와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도시로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 둘 되돌아 오고 있어요.”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김승일(65)씨는 마을 한옥만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지난 2008년 전남도의 ‘행복마을’에 선정돼 동네의 집 45채 중 13채를 한옥으로 개조했다. 김씨는 행복마을추진위원장을 맡아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등지의 도시민들에게 한옥을 빌려주고 있다.

지난해 무월마을이 한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3500만원 남짓이었지만, 4000명 가량이 찾아와 노인들만 살던 마을을 생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어졌다. 고향에 사람들이 몰리고 한옥 지어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자, 떠났던 마을 주민과 도시민 10여명이 새롭게 마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10채의 한옥을 지어, 현재는 23채의 한옥이 그림처럼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 주민들은 도시민들에게 단순히 집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마을

에 자생하는 쪽로차 따기와 전통 다도,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행사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 쪽로차 밭은 일구고 있는 김씨가 다도를 가르치고, 천연염색을 하는 김씨의 아내 백혜순 씨가 염색을 알려주는 식이다.

한옥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벽을 허물고 있고, 오래된 마을의 전통과 삶이 고스란히 체험 프로그램에 녹아 들어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지인들에게 더욱 아름

다운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마을 뒷산 산책로(1.2km)와 돌담(2.6km)을 정비하는 등 힘을 모았다.

이 마을은 전남도가 지난해 행복마을 10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상을 받아 3000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고사리 등도 잘 팔려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올해에는 1만 명 이상이 찾아 올 것으로 보고 늘 정갈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행복마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현지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현재 민박을 운영하는 행복 마을 45곳은 ▲자전거 하이킹·손두부만들기(곡성) ▲종교탐사·농사체험(합

평) ▲천연비누만들기·천연염색(나주) ▲활쏘기·물놀이(강진) ▲갯벌체험·모깃잎송편만들기(영광) ▲풍치즈 만들기·숫대만들기(담양) ▲비피워차따기·물고기 잡기(완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의 폐교나 마을회관 등을 보수해 공동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남도 정근택 행복마을과장은 “한옥은 주거 공간으로도 훌륭하지만 도시와 농촌, 현대와 과거가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이라면서 “도시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한옥에서 치유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행복마을 오시면 한옥 짓기 좋아”

한옥에 살고 싶더라도 건축비가 3.3㎡당 1200만~1300만원에 달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옥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전남에서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한옥발전 기금을 조성해 행복마을 내에 한옥을 짓는 사람에게 보조금 4000만원, 융자금 3000만원(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을 지원해 준다. 또 마을 공공기반시설

에도 3억원을 지원해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 채의 한옥을 일정 기간에 지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마을 내에 한옥을 지어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방법은

전남도 한옥발전기금  
총 7천만원까지 지원

행복마을 내에 한옥 부지를 얻은 뒤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가 새롭게 지원받는 행복마을에 선정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내 고향에 위치한 행복마을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요령이다.

단 행복마을 내 한옥 건축과 관련된 지원은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한옥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을 한옥으로 신청하면 우선 혜택을 준다.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한옥을 짓는다면, 융자금 4000만원(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을 지원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넋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몸과 마음으로 다잡아 추모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슬픈 외침 속에서도 반만년동안 겨레의 자존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일제의 강점과 통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국토는 폐허가 된 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서울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고 영국의 <더 타임즈>도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가 피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민주주의 또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요와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풍요이고, 민주유공자들의 피와 눈물이 아니었다면 피어날 수 없었던 자유입니다.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제외한 남은 자들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도리는 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참된 마음으로 추모하고, 또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에 나섰던 자신의 아들딸을 지금껏 기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진대 우리의 광복과 독립,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드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선열들이 피로써 보존해 온 이 나라를 어떠한 외침으로부터도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최근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핵 실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에만 이끌려 군사적 대비를 기울리 한다면 제2의 천안함 사건, 제2의 포격도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튼튼한 방위력을 갖추는 일이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호국보훈의 정신에서 비롯합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보를 구축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합니다.

나아가,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화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우리 나라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모두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에 참여합시다.